

출판계와 교육 부총리

원용진 |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스타크래프트 열풍을 두고 우리는 언제나 그런 게임을 만들어보나 하고 염려 반 기대 반으로 얘기를 나눴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스타크래프트 열풍을 간단히 잠재운 것은 우리 손으로 만든 리니지 게임이었다.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게임은 출판 만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출판계로서는 참으로 소중한 일을 해냈다고 빠져볼 만도 하다. 출판과 게임이 만나는 소중한 경험을 한 셈이다.

가상서점인 미국 아마존의 급부상을 두고 신화적 성장이라고 했지만 최근 들어 정상을 위협받는 모양이다. 독일의 베텔스만이 2위인 반즈앤노블과 손잡고 정상을 넘본다는 것이다. 이미 각국의 서적 유통시장에 대자본의 침공이 현실화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출판계로서는 사이버 유통망에 대한 관심과 대자본에 대한 경계를 동시에 고민할 것을 요청받는 사건이다.

사이버 잡지인 웹진의 숫자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e-매거진의 등장으로 웹진이 밀리고 있다는 얘기가. 웹진은 클릭을 거듭하며 찾아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데 비해 e-매거진은 수천종의 잡지 안에 담긴 정보를 정리해 직접 배달해준다고 하니 경쟁이 될 리 없다. 벌써 사이버 공간 내에서도 사양산업이 생기는 셈이다. 잡지출판을 하는 이들에게 웹진과 e-매거진이 벌이는 경

쟁은 자신들의 위치를 점검해볼 타산지석의 교훈일 수도 있겠다.

출판과 사이버 공간이 벌이는 이 한판의 연출을 두고 프란시스 케언크로스는 '거리의 소멸'로 불렀다. 국가간 거리, 매체간 거리, 매체 내 장르간 거리 등 모든 거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출판과 사이버 공간의 관계를 미뤄볼 때 틀린 규정은 아닌 듯하다. 이 추세는 멈추지 않고 지속될 것 같다. 출판, 게임, 사이버 잡지, e-비즈니스 등은 서로 함몰처럼 움직이고 있어 '세상이 속절없이 바뀌어 간다'고 넋을 놓았다간 존재의 소멸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출판계는 여러 형태의 소멸의 파고를 타고 넘는 지혜를 은근히 요청받고 있다. 두려움과 질시의 대상으로서 새로운 공간, 현상을 대하는 수동성을 던져버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동성을 보여줄 기회는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출판계가 선뜻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4년제 대학에 출판학과 하나 없는 실정, 멀티미디어 기술과 출판기획을 한데 엮는 지혜를 배울 여유와 공간이 없다는 사실, 문화산업 진흥을 꾀한다면서도 출판은 외면당하는 현실을 두고 '능동성을 띠라'는 말은 잔인한 요청일 수밖에 없다. 정보기술과 문화 소양, 기획능력 그리고 마케팅 능력이 한데 어울려야 제대로 변화해가는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데 이런 요청에 답할 만한 조건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길이 없다.

새해 벽두에 문화와 정보 그리고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 부총리제가 신설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를 출판계가 르네상스를 맞을 전기로 삼아보면 어떨까. 첫 교육 부총리에게 출판이야말로 지식기반 사회의 중추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사양산업이 아니라 문화산업을 이끄는 첨단산업임을 인식시킬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빠른 시간내에 출판인들이 중지를 모아 모처럼의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완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서정희

출판저널·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 · 2 | 편집

732-1433 | 업무·정기구독문의

FAX 722-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의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